

# 광장음악회 100번째...클래식 감상하며 도심 속 힐링

30일, 남구 노대동 물빛근린공원 뮤지컬·영화OST 등 친숙한 곡 꾸민 예술단 '라 트라비아타' 장마리아·김백호·조장후 등 무대



김선희



정찬경



장마리아



김백호

리에게 친숙한 곡들을 들려준다. 공연 연출은 김미옥, 피아노 반주는 이유정 씨가 맡는다.

'동요 메들리'로 문을 여는 이날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장마리아가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의 대표곡인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과 오페레타 '말팔랑이 마리아타' 중 '이탈리아 스트리크 송'을 들려준다. 이어 바리톤 정찬경이 아일랜드 민요 '대니보이', 조두남의 '벚꽃노래', 메조소프라노 신은정이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주제곡 '문 리버', 영화 '모정'의 주제곡 '사랑은 아름다워라'를 선사한다.

이어 테너 김백호는 김동진 가곡 '가고파'와 오페라 리골레토의 '여자의 마음'을, 소프라노 윤한나는 영

화 '오즈의 마법사' 주제가 '오버 더 레인보우', 오페레타 '주디타'의 '내입술, 그 입맞춤'을 선보인다.

테너 조장후가 윤이상 곡 '고풍의상'과 멘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를, 메조 소프라노 임선아가 슈만 가곡 '연꽃' 공연을 펼치며 바리톤 방대진은 조두남 곡 '산촌'을, 소프라노 김선희는 이수인의 가곡 '내 맘의 강물', 레온카발로의 '아침의 노래'를 선사한다.

피날레 곡은 '꿈꾸는 예술'이 함께 부르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다.

광장음악회는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노대동 물빛 근린공원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가수 김재중, 광주 인기 웹툰 주제곡 참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낙인의 플레인위커' OST 발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인기 웹툰 '낙인의 플레인위커' <사진> 주제곡 (OST) 제작에 가수 김재중이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수 김재중

판타지물인 이 웹툰은 광주 기업 ㈜스튜디오 질풍과 ㈜지니스가 공동 제작했다.

홍정훈 작가의 웹소설이 원작이며, 국내 최대 웹툰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에 본사를 둔 ㈜스튜디오 질풍은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웹툰, 게임,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는 '2022 저작권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의 하나로 웹툰 OST 제작을 지원했다.

유명 작곡가 송양하·김재현씨가 작업했으며, 대중음악 전문 제작사인 '블랙하우스'가 총괄을 맡았다. 현악기 반주팀인 '윙스트링'이 연주했다.

OST '이 세상에서'는 오는 8월2일 멜



론, 지니뮤직, 카카오편집, 플로 등 다양한 음원 플랫폼에서 공개된다.

또 국내 웹툰 OST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어 주제곡도 발매할 예정이다.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 관계자는 "가수 김재중의 아시아 공연 투어가 추진되면 웹툰 주제곡의 인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센터는 광주 기업들이 저작권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승고한 영혼들' 광주 공동 예술의 거리 찾는다

세계 퍼포먼스 아티스트 'VIVA! 예술로' 비디오 아트 전시 8월4일까지 비바아트 스페이스...국내 작가 4인 개인작품전

다양한 국적의 퍼포먼스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만나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획이다.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2022 VIVA! 예술로'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VIVA! 예술로' 국제 비디오 아트전을 진행한다.

오는 8월4일까지 광주예술의 거리 비바아트스페이스(동구 예술길 19-2 지하1층)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승고한 영혼들'.

4대륙 7개국에서 참여한 아티스트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관계와 공존, 나눔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각자의 이야기를 몸짓으로 허심탄회하게 풀어놓고, 상대방과의 연결과 소통을 꿈꾸는 작품들이다.

전시에는 프레드릭 크라우케(독일), 안토니 카르바스키(폴란드), 안드레아 아귀아(콜롬비아), 마부부 라벤(방글라데시), 알페로 알바로 페레다로아(칠레), 페니아 코스폴루(그리스) 등 세계적인 퍼포먼스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국내의 유명 퍼포먼스 아티스트들도 '2022 VIVA! 예술로'에 참여한다.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4명의 작가들을 초청한 '퍼포먼스아트 개인작품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철학과 디지털의 만남을 표현하는데 탁월한 아티스트 이산, 한국 퍼포먼스의 대중화의 선봉에서 끊임없는 활동을 보여주는 김백기, 한국 퍼포먼스의 거장 성남경, 2012년 이후 해외 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광주 출신 박경화 작

가 등이 참여한다.

첫 기획인 이산 퍼포먼스아트개인전 '투명화 전략' (큐레이터 박경화)은 30일 오후 5시~7시 은암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VIVA! 예술로 축제 주관사인 ㈜상상오와 은암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3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감각기계', '시선', '낯선 생'으로 사유와 성찰, 디지털 미디어와 아날로그 신체 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로 관객과 함께 작품을 완성해간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30일 공연을 앞둔 퍼포먼스 아티스트 이산.



폴란드 작가 안토니 카르바스키

## 운동주 삶 그린 VR 영화 '시인의 방' 베네치아영화제 이머시브 부문 초청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은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고자 만든 가상현실(VR) 영화 '시인의 방' <사진>이 제79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 이머시브(Immersive) 부문에 초청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머시브 부문은 2017년 신설된 VR 부문을 확장해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한 영화 등 '몰입형' 영화 작품 30편이 경쟁한다.

이번에 초청받은 '시인의 방'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역사 허구(히스토리 픽션) 구성의 영화다. 운동주 시인의 삶을 다룬 이 영화는 시 9편과 함께 주인공 '동주'의 꿈과 고민을 전한다. 국가등록문

화재인 '운동주 친필 원고',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 등도 만날 수 있다.

영화 '기생충'의 아트 필름 '기생충 VR' 등을 감독한 구범석 감독,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총 연출을 맡았던 양정웅 연출가가 제작에 참여했다. 운동주 시인의 목소리 연기는 배우 이상윤이 맡았다.

'시인의 방'은 영화제 기간인 8월 31일(현지시간)부터 9월 10일까지 이머시브 부문에서 공식 상영된다. 영화는 연말 국내에서 정식 개봉할 예정으로, 문화유산채널 유튜브(youtube.com/koreanheritage) 등에서 영화 즐거리, 예고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옆집 사는 조각가' 윤중훈 개인전

발산마을 뽕뽕브릿지 레지던시, 8월 2일~15일

광주시 서구 발산마을 뽕뽕브릿지(월산로 268번길 14-36)는 올해 조각가들이 참여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기초 예술 중 한 분야인 조각이 현대 예술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명맥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년 조각가들과 고민하며 탐구하는 기획이다. 연구를 통해 조각의 의미와 진면목을 알리고 전통조각 중 현대조형예술의 표현방법을 제안하고 확장시켜보자는 의지도 담고 있다.

2022년 뽕뽕브릿지 '옆집 사는 조각가' 레지던시 첫 번째 프로그램이 오는 8월2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이번에 참여하는 작가는 윤중훈이다. 작가는 현대인이 느끼는 이중적인 모습의 심적 무게감을 조형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현대인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는데 작가는 이와같은 '비관적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2023년 조선대 미술대학 미술학과(현대조형미디어 전공) 졸업을 앞둔 젊은 작가는 그는 레지던시 활동을 하며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ACC 아시아스토리 공모전...29일부터 접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은 자신만의 고유함을 지닌 '주변의 인물'을 찾아 향후 창·제작 공연의 새로운 등장인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ACC는 '제3회 ACC 아시아스토리 공모전-새로운 등장인물을 찾습니다'를 개최한다.

공모전 주제는 주변의 인물들. 고유한 생각이나 경험이 있는 이웃들에서부터 역사 속 주인공이 되지 못한 주변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대상이다. 또한 이질적인 사회 또는 문화적 체계의 경계에 있는 '주변인'들까지, '주변'이 상징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면 된다.

희망자는 1000자 이내로 인물묘사나 인물과 관련한 사연, 스토리, 아이디어 등을 제출하면 된다. 총 17편의 스토리를 선정할 예정이며 상금은 대상 300만원. 접수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ACC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 있다.

'ACC 아시아스토리 공모전'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ACC 상연 작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2018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해 오고 있다. 제1회 공모전 가운데 '시간을 짓는 건축가'를 소재로 연극 '시간을 짓는 사람'이 탄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